

제7차 중학교 교과서 교육내용의 적정화 실태 분석

-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 재 춘 · 변 효 중

(영남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사들에게는 수업을 위한 일차적인 수업자료로서,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학습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교육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의 방향과 정신의 구현물로 간주된다. 교육과정의 구현물로서의 교과서는 교육내용의 양과 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양이나 질과 관련된 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의 구현물인 교과서 내용 분석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양과 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로 ‘양의 축소’와 ‘난이도 수준의 하향 조정’을 통한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이전에 비하여 약 30% 정도 축소 조정하는 것을 지침으로 정하는 등 교육내용의 축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김재춘, 1997). 이처럼 ‘교육내용의 적정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 지침이 된 데에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주어진 수업 시수에 비해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내용의 수준 또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판

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주어진 기간에 배당된 교과서 내용을 끝마치기 위하여 ‘수박겉핥기식’의 부실한 수업이 운영되며, 학생이 맹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암기위주’의 수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김기석 외, 1996; 이돈희 외, 1997) 등은 바로 교육내용이 적정화되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1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이제 7차 교과서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교육내용의 적정화 지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해서 내용의 적정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지침 중의 하나인 ‘교육내용 적정화’가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6·7차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2001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1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새 교육과정의 주된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 내용의 논리적 위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수학 및 영어 교과에서는 단계형 수준

<표 1> 교과서 분석 대상 과목 및 해당 출판사

7차 교과서			6차 교과서		
대상학년	대상과목	대상출판사	대상학년	대상과목	대상출판사
중학교 1학년	사회	A	중학교 1학년	사회	C
		B			
	수학	D		수학	F
		E			

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교과 내용의 논리적 위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국어, 과학, 사회 교과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 적정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와 수학 교과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는 인문사회 계통의 교과이고 수학은 이공계통의 교과라는 차이 외에도 사회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과이고 수학은 단계형 수준별 교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사회 교과서 3권(7차 교과서 2권, 6차 교과서 1권), 수학 교과서 5권(7차 교과서 4권¹⁾, 6차 교과서 1권)으로 총 8권이다.

7차 교과서의 교육내용 적정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7차 교과서와 함께 6차 교과서를 분석하는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비 30% 정도의 내용 축소 및 난이도 수준의 하향 조정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각 교과별로 해당 교육과정 적용시기에 가장 많이 팔린 출판사의 교과서이다.²⁾ 그렇기 때문에 동일 과목이라도 7차 분석 대상 교과서와 6차 분석 대상 교과서의 출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II. 교과서 분석을 위한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육내용 적정화’는 제7차 교육과정 총론 지침과 교과서 개발 지침에 제시된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의미한다. 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교과별 최저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기초적, 기본적, 공통적, 보편적인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한다.”(교육부, 1997e: 1-2)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약 30% 정도의 교육내용 축소와 난이도 수준의 하향화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의미는 논의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³⁾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을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즉 각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 주제 및 제재 등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실태를 교육내용 범위의 조정과 교육내용 수준의 조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제한하여 분석한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적정화 정도를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 양적 분석은 6차 및 7차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이나 주제 및 제재의 수 등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질적 분석은 6

1) 수학 교과서의 경우 6차에서는 학년별 구성이었기 때문에 1권이지만 7차에서는 학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로 교과서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2권씩이다.

2) 분석 대상 교과서의 출판사명은 정보 제공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3) 허경철 등(2000)은 교육내용에 대한 개념을 사실, 개념, 원리, 이론 등 지식으로서의 교육내용, 가치와 태도로서의 교육내용, 지적 및 신체적 기능으로서의 교육내용, 소재거리로서의 교육내용, 활동거리로서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목표, 교육자료, 교육방법간의 관계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차 및 7차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난이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내용의 양적 증감 분석 기준

교과서 내용의 양적 증감 분석은 6차 및 7차 교과서에 포함된 단원, 주제, 제재 수의 양적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제는 소단원을 의미하며, 제재는 학습 내용 요소를 의미한다.

2.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 기준

교과서 내용의 질적 분석 즉 난이도 분석은 난이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절대적인 의미로 규정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상대적인 의미로 규정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른바 ‘체감 난이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새로운 단원이나 주제, 제재가 첨가되거나 윗 학년의 내용이 아랫 학년으로 이동되어 올 경우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규정하고, 이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아랫 학년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윗 학년으로 이동되어 올 경우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규정한다. 즉 6차 및 7차 교

과서에 제시된 단원이나 주제, 제재 등의 추가, 삭제, 학년간 이동 등과 같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즉 단원, 주제, 제재 등의 변화 유형과 정도를 분석하여 6차 및 7차 교과서의 난이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Ⅲ. 사회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내용의 양적 증감 분석

가. 단원 수의 비교

먼저 중학교 1학년 사회과 6차 및 7차 교과서에 편성된 단원 수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6차 교과서에서 9개였던 단원이 7차에서 10개 단원으로 1개 단원 11.1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교과서의 영역별 단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지리 영역의 경우 6차에서는 5개 단원이던 것이 7차에서는 6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1개 단원이 증가하고 있다. 6차에서 2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관련 내용이 7차에서 1개 단원으로 통합되었으며, 6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관련한 2개의 단원이 7차에서 새로 편성되었다.

역사 영역의 경우는 6차와 7차 각각 3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단원 수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차에서의 ‘고대 문명의 형성’ 단원은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단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6차의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문화권의 형성’ 단원과 ‘아시아 전통 사회의 변화’ 단원을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단원으로 통합하고, 6차에 없던 ‘인간 사회와 역사’라는 새로운 단원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 영역의 경우는 단원 수 및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

4)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분석하는 일은 일종의 질(質)을 분석하는 것이 때문에 양의 분석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왜냐하면 양의 분석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질의 분석은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이용숙 외(1995)는 1) 가독성 공식들에 의한 난이도 평정 방법 2) 내용의 구조를 고려한 분석 방법 3) 학생의 인지 구조를 고려한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재 수의 비교

6차 및 7차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재 수의 변화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6차 중학교 1학

년 사회 교과서에서 총 99개이던 제재 수가 7차 A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113개로 14개(14.14%)의 제재 수가 증가하였고, B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124개로 25개(25.25%)의 제재 수가 증가하였다. 수치상으로 볼 때, 이는 교육 내용의 30% 감축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지

<표 2>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영역별 단위 비교

영역	6차	7차	
	C 출판사	A 출판사	B 출판사
지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동부 및 동남 아시아의 생활 · 남부 및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지방의 생활 · 남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생활 ·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 유럽의 생활 ·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역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문명의 형성 ·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문화권의 형성 · 아시아 전통사회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사회와 역사 · 인류의 기원과 고대문명의 형성 ·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사회와 역사 · 인류의 기원과 고대문명의 형성 ·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통합영역	· 지역 사회 탐구	· 지역과 사회 탐구	· 지역과 사회 탐구
단원수	9	10	10

<표 3>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전체 제재 수 비교

구분		6차	7차			
영역	소단원 (주제)	C 출판사 제재 수	A 출판사		B 출판사	
			제재 수	증감(율)	제재 수	증감(율)
지리영역	중부 지방의 생활	13	12	1	14	+1
	남부 지방의 생활	11	11	0	12	+1
	북부 지방의 생활	9	7	-2	7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21	15	-6	18	-3
	유럽의 생활	0	13	+13	14	14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0	10	+10	12	-12
	소개	54	68	+14	77	-23
역사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	0	6	+6	6	+6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9	8	-1	8	-1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27	23	-4	24	-3
	소개	36	37	+1	38	+2
통합	지역과 사회	9	8	-1	9	0
계		99	113	-14(+14.14%)	124	+25(+25.25%)

침과는 정만대의 현상이다.

먼저 지리 영역은 6차에서 ‘동부 및 동남 아시아의 생활’과 ‘남부 및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의 2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관련 단위를 7차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의 1개 단원으로 통합하였고, 그 결과 6차에서 21개였던 제재 수를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5개, 그리고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8개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서 첨가된 2개 단원에 해당하는 제재 수가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3개,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6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제재 수가 14%~25% 늘어났다.

역사 영역에서의 제재 수준을 살펴보면, 6차에서의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문화권의 형성’과 ‘아시아 전통사회의 변화’의 두 개 단원을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라는 한 개의 단원으로 통합하였고, 그 결과 6차에서 27개였던 제재 수가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3개,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4개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7차에서 ‘인간 사회와 역사’ 단원이 첨가되어 A 출판사와 B 출판사 교과서 모두에서 6개의 제재수가 늘어나 역사 영역 전체의 제재 수가 약 2.8%~5.6%정도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통합 영역에서의 제재 수는 6차와 7차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교과서 내용의 양적 분석의 결과 중학교 1학년 사회과 7차 교과서에서는 6차 교과서에 비해 교육내용이 증가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30% 축소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은 수학 교과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이나 주제, 제재의 학년간 이동, 삭제, 첨가 등 제재의 변화 유형과 정도에 대한 상태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앞의 양적 증감 분석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리 영역에서 6차에서 ‘동부 및 동남 아시아의 생활’과 ‘남부 및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의 두 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7차에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이라는 한 개의 단원으로 통합되었고, 6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럽의 생활’과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이라는 두 개의 단원이 7차에서 새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단원이 통합된 경우, 앞의 제재 수 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단원은 통합되었지만 제재 수의 감소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7차에서 첨가된 ‘유럽의 생활’ 단원과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단원의 경우는 제재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당 학습해야 하는 제재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학생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첨가된 2개 단원은 6차에서 2학년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이 7차에서 1학년으로 이동된 경우이다. 이는 동일한 내용이 상위 학년에서 하위 학년으로 이동하여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차 및 7차 사회 교과서에서 각 단위별 제재들을 중심으로 내용의 삭제, 학년 간 이동, 첨가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6차 교과서에 있던 내용 중에서 삭제된 제재가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5개,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6개가 있다. 그리고 첨가된 내용으로는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6개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8개가 있다.

둘째, 학년간(2학년에서 1학년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제재는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3개,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6개가 있다. 이처럼 학년에서 이동해온 내용은 1학년 수준에서는 새로 첨가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을 종합하면,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5개 제재가 삭제된 반면 29개가 첨가되었고,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6개가 삭제되고 34개가 첨가되었다.

<표 4>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의 변화

단위명		내용	7차		비고
			A출판사	B출판사	
지 리 영 역	중부 지방의 생활	· 풍부한 문화 유적 · 토지 이용의 변화	삭제	친가	
	남부 지방의 생활	· 관광산업		친가	
	북부 지방의 생활	· 북부 지방의 변화 · 관광 산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 일본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	삭제	삭제	
		· 동남아시아의 자연 환경, 특징	삭제	삭제	
		· 남부아시아의 자연환경	삭제		
		·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 프리카의 문화적 배경	삭제		
		· 중· 남부 아프리카의 문화적 배경	삭제		
		· 기아와 환경문제	삭제	삭제	
	유럽의 생활	.	· 자연환경 · 유럽의 민족과 종교 · 공업의 발달 · 인구의 특색 · 농업의 특색 · 유럽의 통합 · 문화의 발달지 · 공업발달 · 수목농업의 발달 · 관광산업발달배경 · 자연환경 · 민족과종교 · 농업과공업의 변화	· 자연환경 · 자원개발 · 역사문화적배경 · 자원과산업 · 지역문제 · 자연환경의 특색 · 문명의발상지 · 민족과종교 · 수목농업발달 · 공업의발달 · 관광산업의발달 · 자연환경 · 역사문화적배경 · 주요산업	세세의 이동 (중학교 2학년 → 중학교 1학년)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	· 다양한기후 및 지형 · 대규모농복업 · 풍부한자원과공업발달 · 인구와도시 · 인종과문화 · 식량특징과 기후 · 농산물과광산물 · 인구의증가와지역개발 문제 · 오스트레일리아 · 양극지방	· 자연환경 · 역사문화적배경 · 자원과산업 · 인구와도시 · 식량문제와경제협력 · 자연환경 · 역사문화적배경 · 자원과 산업 · 오스트레일리아 · 인구와 지역문제 · 대양양여러선들 · 양극지방	
역 사 영 역	인간 사회와 역사	.	· 시간과 역사 · 자연과 인간 · 세계사학습의 의의 · 자연환경의 변화 · 문화권의형성과 교류 · 미래사회와 우리	· 역사란무엇인가? · 세계사학습의 의의 · 자연환경 · 인간생활과 자연환경 · 문화교류와세계의 확대 · 지구촌의 형성과 21세기	신설된 단위: 제제의 쟁가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 의 형성	· 오리엔트문명의 특징과 공헌	삭제	삭제	
	아시아사회의 발전과 변화	· 인도의 통일과 문화	삭제		
		· 이란과아라비아의 변화	삭제		
		·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삭제		
		· 이슬람 문화의 발달과 전파	삭제		
통합 영역	지역과 사회탐구	· 지역사회의 이해	삭제		

그리고 첨가된 대부분의 내용은 2학년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이동되어 온 것이다.

이상의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IV. 수학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내용의 양적 증감 분석

가. 단원 수의 비교

제7차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형식이나 체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6차에서는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통계, 도형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던 것이 7차에서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 도형으로 바뀌었다. 6차와 7차간의 영역 수는 같지만, 영역의 명칭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차까지의 수학 교과서는 학년별로 교과서가 제작된 반면, 7차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과서로 학기별로 교과서가 제작되고 있다.

6차와 7차 교과서에 나타난 단원의 증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7차의 D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6차의 F 출판사 교과서와 단원 수가 같다. 7차의 E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는 9개 단원으로 6차에 비해 ‘문자와 식’ 영역에서 1개의 단원이 더 늘어났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볼 때, 7차 교과서 내용은 6차 교과서에 비해 같거나(D 출판사) 늘어났다(E 출판사)고 볼 수 있다.

7차 교과서가 6차 교과서에 비해 단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늘어났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6차와 7차 교과서의 단원의 구성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와 연산’ 영역을 보면, 6차에서 ‘수와 식’ 단원이 7차에서는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수와 유리수’는 6차의 ‘수와 식’ 단원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따로 떨어져 나와 하나의 단원으로 독립된 것으로 이는 6차의 ‘수와 식’ 단원에서 정수와 유리수 이외의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뜻한다.

이와는 반대로 ‘문자와 식’ 영역에서는 6차에서 ‘일차 방정식’이라는 하나의 단원이 D 출판사의 경우는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E 출판사의 경우는 ‘문자와 식’, ‘일차 방정식’ 두 개의 단원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 내용의 일부가 ‘문자와 식’ 영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D 출판사의 경우는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 속에서도 함께 다루

<표 5>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영역별 단원비교

영역	6차	7차	
	F 출판사	D 출판사	E 출판사
수와 연산	· 집합과 자연수 · 수와 식	· 집합과 자연수 · 정수와 유리수	· 집합과 자연수 ·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식	· 일차 방정식	· 문자와 식	· 문자와 식 · 일차방정식
규칙성과 함수	· 함수와 그래프	· 함수	· 함수
확률과 통계	· 자료의 정리	· 통계	· 통계
도형	· 도형의 기초 · 도형의 성질 · 도형의 관찰	· 도형의 기초 · 도형의 성질 · 도형의 측정	· 도형의 기초 · 도형의 성질 · 도형의 측정
단원수	8	8	9

고 있고, E 출판사의 경우는 두 개의 단원으로 분리하였다. 그 결과, E 출판사 교과서의 단위 수가 6차 교과서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다.

나. 제재 수의 비교

6차 및 7차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제재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제재 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은 도형과 관련한 단원에서였다. ‘도형의 관찰’ 단원에서는 6차에 있던 모든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도형의 관찰’이라는 단원이 없어지고 6차에서의 ‘도형의 성질’에 포함되었던 ‘입체도형의 길넓이와 부피’ 내용이 7차에서 ‘도형의 측정’이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표 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차 교과서에서 55개이던 제재가 7차에서 D 출판사의 경우는 48개로 7개(12%)가 감소하였고, E 출판사에서는 51개로 4개(7%)가 감소하였다. 6차와 비교할 때 7차 교과서에서 제재 수가 증가한 영역은 ‘규칙성과 함수 영역’이고, 제재 수의 변화가 없는 영역은 ‘문자와 식’ 영역이다. 그리고 제재 수가 감소한 영역은 ‘수와 연산’ 영역과 ‘도형’ 영역 두 개이다. 특히 7차 교과서의 ‘도형’ 영역에서 제재 수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7차 교과서의 전체 제재 수가 6차 교과서의 전

체 제재 수보다 적어졌다.

제재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역은 ‘도형’ 영역에서 6차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도형의 관찰’ 단원의 삭제이다. 삭제된 제재들을 보면, 단일 폐곡선, 피비우스의 띠, 한 붓 그리기, 꼭지점, 변, 면의 개수, 오일러의 공식 등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의 제재 수 변화를 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 ‘오진법’, ‘근사값과 오차’ 두 개의 제재가 감소하였다. 제재 수가 늘어난 경우는 ‘규칙성과 함수’ 영역에서의 ‘함수의 활용’ 부분이 있으며, 특히 E 출판사의 경우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도수 분포 표에서의 평균’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단원 및 제재 수의 양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차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비록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내용의 30% 감축이라는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내용의 삭제 및 이동 배치 등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학습량 감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

수학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은 6차 및 7차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이나 주제, 제재 등의 삭제, 추가, 학년간 이동 현황 등 주요 내용들에 대한 변화 유형과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이

<표 6>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영역별 제재 수 비교

영역	6차	7차			
	F 출판사	D 출판사		E 출판사	
	제재 수	제재 수	증감(율)	제재 수	증감(율)
수와 연산	17	15	-2	15	-2
문자와 식	7	7	0(0)	7	0
규칙성과 함수	4	5	+1	5	-1
확률과 통계	4	4	0	5	1
도형	23	17	-6	19	-4
합계	55	48	-7(-12%)	51	-4(-7%)

루어졌다.

<표 7>과 <표 8>은 6차 및 7차 교과서의 교육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6차에는 있던 내용이 7차에 들어오면서 삭제된 내용이라든지 6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7차에서 첨가된 내용, 그리고 제제의 학년간 이동 및 통합의 경우를 파악하여 표시한 것이다.

<표 8>⁵⁾에서 기출 개념에서 신출 개념으로의 화살표 표시는 6차에서는 이전의 학년에서 한 번 다루어지고 중학교 1학년에서 다시 다루어졌던 내용(기출 개념)이 7차에서는 중학교 1학년인 7단계에서 처음 다루어짐(신출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의 경우는 6차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이후의 학년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7차에서는 7단계에서만 다루어지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표 8>은 <표 7>의 내용을 삭제, 첨가, 이동, 통합 등의 사례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6차 및 7차 교과서의 비교·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차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된 내용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 ‘집합과 자연수’ 단원의 오진법, 근사 값과 오차 내용과 ‘도형’ 영역에서 ‘도형의 관찰’ 단원의 모든 내용이다.

둘째, 6차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7차 교과서에서 첨가된 내용은 ‘규칙성과 함수’ 영역에서 ‘함수’ 단원의 함수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함수를 실생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원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학년간의 이동이 일어난 내용은 통계 단원의 ‘도수분포 표에서 평균’ 구하기가 6차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어지던 것이 7차에

들어오면서 7단계로 이동하여 첨가되었다.

넷째, ‘도형’ 영역에서 도형의 측정 단원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내용은 6차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다루어졌는데, 제7차에서는 7단계로 통합되어 한번만 다루어진 다.

다섯째, 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도입하고 중학교에서 보다 수준을 높여서 다루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중학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기출 개념에서 신출 개념으로 바뀐 경우는 10여 개의 제제에 달한다.

V. 논의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중학교 1학년 6차와 7차 사회 및 수학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시한다.

1. 사회 교과서 분석

사회 교과서의 적정화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양적인 분석은 교과서 단원 및 제제 수의 양적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 졌고, 질적 분석인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은 단원, 주제, 제제의 삭제, 첨가, 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회 교과서의 양적 증감 분석 결과, 단원 수는 7차 교과서가 각각 6차 교과서보다 1개 단원(11.11%)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제수는 6차 교과서에서 99개 이던 것이 7차 A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13개, B출판사 교과서에서는 124개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의 양적 분석의 결과 중학교 1학년 7차 교과서에서는 6차 교과서에 비해 학습량이 증가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지침 사항인 교육내용 30% 축소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6차에서

5) 표의 내용은 허경철 외(2000)의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과다 정도 및 난이도 수준 분석 연구』의 6차 및 7차 수학교육과정의 비교 결과표를 참고로 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6차 및 7차 교육과정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자는 분석결과를 6차 및 7차의 중학교 1학년 실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표 7>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내용의 변화

영역	단원명	내 용	비 고
수와연산	집합과 자연수	· 집합의 뜻과 표현	기출→신출(초5, 중1→중1)
		· 집합의 포함관계	기출→신출(초5, 중1→중1)
		· 집합의 연산	기출→신출(초5, 중1→중1)
		· 오진법 · 근사값과 오차	삭제
		·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과 사칙계산	기출→신출(초6, 중1→중1)
문자와식	일차 방정식	· 방정식과 그 해	기출→신출(초6, 중1→중1)
		· 등식의 성질	기출→신출(초6, 중1→중1)
		· 일차 방정식의 활용	기출→신출(초6, 중1→중1)
규칙성과 함수	함수	· 함수의 활용	첨가
확률과 통계	통계	·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기출→신출(초6, 중1, 중3→ 중1)
		·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이동(중3→중1)
도형	도형의 성질	·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기출→신출(초6, 중1→중1)
	도형의 측정	·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통합(중1, 중3→중1)
	도형의 관찰	· 단일폐곡선 · 피비우스의 띠 · 한 붓그리기	삭제
		· 꼭지점, 변, 변의 개수	삭제(심화 과정)
		· 오일러의 공식	삭제(심화 과정)

<표 8>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내용 변화 요약

구분	내용	6차 교과서	7차 교과서	비고
삭제된 내용	· 오진법 · 근사값과 오차 · 단일폐곡선 · 피비우스의 띠 · 한붓그리기 · 오일러의 공식 · 꼭지점, 변, 변의 개수	○	×	이진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진법에 대한 학습이 선행될 가능성이 있음 심화 과정에서 오일러의 공식, 꼭지점, 변, 변의 개수를 다룸
첨가된 내용	· 함수의 활용	×	○	
이동된 내용	·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구하기	×	○	중3→7단계
통합된 내용	·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1 + 중3	7단계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에서 다루다가, 7단계로 통합됨
기출 개념 ↓ 신출 개념	· 집합의 뜻과 표현 · 집합의 포함 관계 · 집합의 연산	초5 + 중1	7단계	
	· 십진법의 전개식 · 정수의 뜻 · 정수의 사칙 연산 · 등식의 성질 ·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 좌표 · 도수분포표 · 히스토그램	초등 6 + 중 1	7단계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어지던 ‘유럽의 생활’,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이라는 단원이 1학년으로 이동하였고, ‘인간 사회와 역사’라는 단원이 신설되었다. 제재 수를 비교해보면, 7차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29개의 제재가 첨가된 반면에 15개가 삭제되었고,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32개 제재가 첨가되고 6개가 삭제되었다. 중학교 1학년 연간 수업시수가 6차와 7차가 공히 102시간이란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시간동안에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체감하는 교과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2. 수학 교과서 분석

수학 교과서의 적정화 분석은 사회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양적인 분석은 교과서 단원, 제재 수의 양적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 졌고, 질적 분석 즉 난이도 분석은 단원, 주제, 제재의 삭제, 첨가, 이동의 유형 및 정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수학 교과서 내용의 양적 증감 분석 결과, 단원 수는 7차 D 출판사 교과서는 6차 교과서의 단원 수와 동일한데 비하여 E 출판사 교과서는 1개 단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재 수는 7차 교과서에서 상당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차 교과서에서 55개이던 제재 수가 7차 D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48개로 12%가 줄어들었으며, E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51개로 7% 줄어들었다. 제재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6차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도형의 관찰’ 단원의 내용 삭제이다.

7차 교과서에서 삭제된 제재들을 보면, 단일 폐곡선, 피비우스의 띠, 한 붓 그리기, 꼭지점, 변, 면의 개수, 오일러의 공식 등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의 제재 수 변화를 보면 ‘수와 연산’ 영역에서 오진법, 근사값과 오차 두 개의 제재가 감소하였다. 6차 교과서에서는 십진법 이외의 진법으로 오진법과 이진법을 다루었으나, 7차 교과서에서는 이진법만 남게되었다.

제재 수가 공히 늘어난 경우는 ‘규칙성과 함수’ 영역에서의 함수의 활용 부분이 있으며, E 출판사의 경우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도수 분포 표에서의 평균 구하기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재 수의 변화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해주려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 존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 분석 중 질적 분석인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분석의 결과를 보면, 6차에서 있던 내용 중 7차에서 삭제된 내용이 7개였고, 6차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7차에 들어오면서 추가된 내용이 1개였다. 이외에 7차로 들어오면서 통합된 내용이 1개, 6차에서는 기출 개념이었던 것이 7차에서 신출 개념으로 바뀐 경우가 11개로 나타났다. 요컨대, 많은 내용들이 삭제되었고,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 내용 요소들이 중학교에서 비로소 다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면, 실생활과의 관련이 적고 학문적 성격이 강한 내용들은 통합되거나 삭제되고, 실생활과 관련이 많고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내용들은 새롭게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생활과 관련한 개념의 도입 및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위주의 변화가 학생들의 내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 연구는 ‘교육내용 적정화’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지침이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6·7차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 학습 내용의 범위가 넓어졌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교과서는 6차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졌던 단위간의 통합이 일부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6차 때 2학년에서 다루어지던 2개 단원이 7차에서 1학년으로 이동해치 되면서 단위 및 제재 수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6차와 7차간의 수업시수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내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경우 제재 수가 6차에 비해 7%~12%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학문적 성격이 강한 내용은 줄어들고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증가됨에 따라 6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의 하향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7차 수학 교과서가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조정 차원에서 볼 때 내용의 적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6차에 비해 교과서 내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의 30% 감축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내용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교 1학년 사회 및 수학 교과서 내용 적정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사회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감축되는 방향으로 적정화가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교과서에서는 교육내용의 적정화라는 교육과정의 지침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서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의 적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 30% 감축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루어진 7차 초등학교 8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대체로 30% 정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기호, 2002).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사회 교과서의 내용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중학교 교과서가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내용 감축이라는 교육과정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내용의 적정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많은 교사들에게 7차 교과서의 교육내용이 줄어든 것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제7차 교과서에는 기본 내용 외에도 심화 학습 내용과 보충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교사들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둘째, 7차 교과서에는 사실이나 단편적인 정보 중심의 내용보다는 주제나 활동 중심의 내용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주제나 활동 중심의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현재보다 더욱 많이 줄어든 필요가 있다.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Less is more)이라는 모토로 적은 수의 내용 요소를 가르치되, 학생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여 여러 상황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층 학습 교육을 진행하고자하는 여러 선진국의 교육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교육내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학년별, 교과별

교육내용 적정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이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a).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특별 활동」.
- 교육부(1997b).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 교육부(1997c).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수학, 과학, 기술·가정」.
- 교육부(1997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별책1호].
- 교육부(1997c). 「제7차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
- 교육부(1999a).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도서 선정 기준」.
- 교육부(1999b).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중학교)」.
- 교육부(2000).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 개발. 「교육마당21」, 12월, 84-86.
- 김기석·문용린·박정익·김재춘(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 김재춘(1997).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방향」. 제7차 교과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 워크샵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재춘·부재율·소경희·채선희(200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호·윤현진·황혜정·이선경·박소영(199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E 98-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소경희(2000).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18(1), 201-218.
- 수학사랑(2000). 「7차 교육과정 수학과 7가, 7나 교과서 분석 자료」.
- 이기호(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교육내용 적정화 실태 분석 초등학교 3학년 8개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논희·곽병선·최석진·허경철·조난심·박순경·홍후조·김재춘(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이용숙·김영준·이근남·양미란·최정옥·박순경(1995). 「교과서 정책 및 내용 선정방식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난심(1997).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방향과 지침.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방향」. 제7차 교과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 워크샵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최석진(1997).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원.
- 한국교과서연구소(1998). 「교과서 연구」, 제31호.
- 한국교육개발원(1996a). 「교육과정 2000 총론안(Ⅰ)」. 제7차 교육과정 심의자료.(미출판).
- 한국교육개발원(1996b). 「교육과정 2000 총론안(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안 배경설명자료」. 7차 교육과정 심의자료.
- 허경철·김왕근·김홍원·박경미·최본형(2000).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파다 정도 및 난이도 분석연구 중학교 수학교과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4), 203-224.

ABSTRACT

A Study on the Reduction of Educational Content in the Textbooks of the 7th Graders' Social Studies and Math

Chaechun Gim · Hyojong Byeon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the 30% cut-off guidelines of educational content demanded by the 7th National Curriculum has been accepted in the development of new textbooks. For the study, researchers have chosen two different subjects, 7th graders' Social Studies and Math.

The researchers analyzed old(6th) textbooks and new(7th) textbooks and compared to see whether educational content of the new textbooks has been reduced compared with old ones. The comparison has been done twofold. First,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made in order to compare the number of units or topics included in the textbooks. Second, qualitative analysis has been made in

order to see whether the new textbooks include less difficult content than the old on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educational content of the Math textbooks has been reduced quite significantly, but has not been reduced to the degree which the 7th National curriculum has demanded. However, the educational content in the textbooks of Social Studies was found not to be reduced, but to be increased. It is suggested that it is urgent for educational policy-makers or administrators to study in order to find what prevents the reduction of education content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Key Words : reduction of educational content, level of difficulty, 7th National Curriculum.